



본플러스디자인 '시티가드'

(격자 모양 옥외 배수관 뚜껑)

도로 침수·하수관 악취 막는 '그레이팅 덮개'

그레이팅 안 풍초 등 쓰레기 장마철 도로 침수·악취의 원인 쓰레기 유입 막고 배수 잘되게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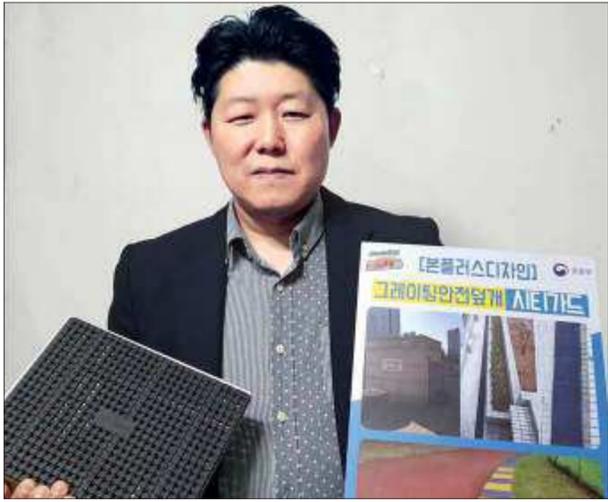
“국내 학교·해외 진출 노릴 것”

장마철이면 전국 도로 곳곳이 침수된다. 천문학적 재산·인명 피해를 부르는 자연 재해지만 매년 반복된다. 도로 침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로 하수관 막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레이팅(격자 모양의 옥외 배수구 철물 뚜껑) 안을 들여다보면 담배꽂초와 각종 쓰레기, 낙엽이 가득하다.

본플러스디자인의 '시티가드'는 그레이팅을 덮어 하수관에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제품이다. 장마철 도로 침수를 예방할 뿐 아니라 하수관 악취, 해충 서식도 막아준다.

◆홍수 때 침수 방지하는 그레이팅 덮개
구분승 본플러스디자인 대표는 산업디자인이다. 1세대 MP3 제조회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제품 디자인을 담당했다. 2016년 차린 본플러스디자인 역시 산업디자인 용역회사지만 최근에는 그레이팅 덮개 시티가드 일에 매진하고 있다.

구 대표는 “어느날 버스정류장에서 있었다가 그레이팅 밑을 쳐다봤는데 담배꽂초와 낙엽이 잔뜩 쌓여 있어 깜짝 놀랐다”며 “막힌 배수관을 청소하기 위해 매년 서울시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배수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돕는 제품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분승 본플러스디자인 대표가 그레이팅 덮개 시티가드를 설명하고 있다. 심성미 기자

시티가드를 쉽게 설명하면 '그레이팅 덮개'다. 하지만 단순한 덮개는 아니다. 격자 모양의 그레이팅 밑으로 쓰레기나 낙엽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물은 잘 빠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민 끝에 덮개에 담배꽂초 크기의 작은 구멍을 수십 개 뚫었다. 언뜻 보면 구멍이 너무 작아 물이 잘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자체적으로 배수력 테스트를 한 결과 분당 405L가 배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대표는 “큰 양동이를 확 부었을 때 바로 빠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수관을 청소한 뒤 시티가드를 설치하면 배수관을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학교와 해외로 판로 확대
일반 도로에 설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의외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 그는 “학교 운동장 바깥 부분에 꼭 설치된 그레이팅이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먼저 하수관에 유입된 쓰레기나 낙엽이 썩어서 교내 악취의 원인이 된다. 모기와 파리 등 해충의 단골 서식지라 골칫거리다. 그는 “격자 그레이팅은 간격이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뛰어들다 발이 끼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본플러스디자인
설립 2016년 4월
위치 서울 광진구 중곡동
제품 그레이팅 덮개 시티가드
특징 도로 배수관 밑에 각종 쓰레기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

많았다”며 “시티가드를 설치하면 이 같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말했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인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EVA)로 제작해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에서도 자유롭다는 게 구 대표의 설명이다.

덮개 밑에 달린 후크를 이용하면 손쉽게 고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발도로나 사를 박거나 케이블선으로 고정해야 해 설치비용이 높고 보수하기도 어렵다는 게 구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내년부터 국내 학교뿐 아니라 아마존을 통한 해외 진출도 노릴 것”이라며 “좀 더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 (thebest@hankyung.com)로 신청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SK바이오팜 수면장애신약 유럽 CHMP '판매 승인' 권고

두달 내 최종 허가 전망 “국산 중추신경계 신약으로는 최초로 해외 유입 진출”

SK바이오팜은 자사의 수면장애 신약 '솔리암페롤'이 지난 15일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위원회(CHMP)로부터 판매 승인을 권고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이 지난해 11월 EMA에 판매 허가 신청을 한 지 1년 만에 CHMP로부터 판매 승인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앞으로 6월 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O)의 검토를 거쳐 최종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으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중추신경계 혁신 신약 중 처음으로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 판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솔리암페롤은 SK바이오팜이 199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신약후보물질이다. 원래 항우울제로 개발하다가 임상시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자 2004년 수면장애 치료제로 방향을 틀었다.

SK바이오팜은 2011년 임상 1상을 마치고 에리얼바이오파마에 기술수출했다. 2014년 제스파마슈티컬스는 에리얼바이오파마로부터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상업

화 권리를 4500억원에 인수했다.

제스파마슈티컬스는 2017년 임상 3상을 완료한 뒤 기면증과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졸림증 환자의 각성 상태를 개선하는 치료제로 지난 3월 FDA 허가를 받아 '수노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2개국에서의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상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는 “FDA 승인에 이어 이번엔 CHMP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은 것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연구개발(R&D)에 주력해온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으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중추신경계 혁신 신약 중 처음으로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 판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또 올해 말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FDA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판매 허가 신청을 했다. SK바이오팜은 유럽에서 이 약을 상업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스위스의 아벨테라퓨틱스에 6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했다. 아시아 시장 공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임우 기자 freeu@hankyung.com

company & more

중서 이유식 용기 대박 난 삼광글라스

이유식 확산으로 240만개 판매 해외매출 증가로 실적도 개선

유리 밀폐용기업체 삼광글라스에서 내놓은 이유식 용기 '글라스락 베이비'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17일 삼광글라스에 따르면 이유식 용기의 중국 시장 누적 판매량이 최근 240만 개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만 80만 개 넘게 팔렸다. 이 제품은 타물 징동닷컴 등을 비롯한 온라인몰과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영유아에게 쌀미음을 먹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국내처럼 영양가 높은 이유식 문화로 바뀌는 추세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선 '아기'가 처음 맛보는 음식인 만큼 다양한 식재료를 시도하고 영양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아기는 한 번에 적은 양을 먹기 때문에 이유식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밀폐용기가 많이



삼광글라스 '글라스락 베이비'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 내 매장 전경. 삼광글라스 제공

필요하다. 이 같은 변화와 맞물려 삼광글라스의 이유식 용기 프리미엄 영유아 제품으로 중국에서 급부상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글라스락 베이비는 내구성이 높고 단단한 내열강화유리로 제조, 환경호르몬 같은 유해물질 발생 우려가 없다. 국내에서 생산한 '메이든 코리아' 제품이라는 것도 중국 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내 고급 주방용품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상하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 관리 등을 담당하

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해외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북미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인 샘스클럽과 지난 7월 900만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의 수출량 증가 및 병유리 사업과 글라스락 판매 호조 등이 이어졌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 3분기 매출 2070억원, 영업이익 15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162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납품대금 미루는 기업 가려낸다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위탁거래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부터 총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한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방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30곳과 가맹본부 100곳 이상도 포함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탁기업의 의무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 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 위탁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고, 2 단계엔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한 뒤 3단계로 위반 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이를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범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적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NEW! 새로 나왔어요

현대리마트, 학생용 가구 '뉴리브로 시리즈' 출시



현대리마트는 수납공간과 선택사항을 늘린 중·고등학생용 가구 '뉴리브로 시리즈(사진)'를 출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뉴리브로 시리즈는 책상, 책상, 침대, 옷장, 서랍장 등 30여 종으로 구성됐다. 책상에는 포름알데히드 방출이 적은 E0 보드가 적용됐다. 책상과 책상에는 수납 공간을 늘렸다. 책상 아래에는 허부 선반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책상 옆면에는 수납용 고리를 달아 가방을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campus **JOB & JOY**

Vol. 178
2019.11.25~12.08

'유니콘' 넘어 '데카콘'으로 향하는 스타트업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5년, 10년 후 꼭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 거예요.” 청년들이 스타트업으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가능성’이다. 큰 공장의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이야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곳이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끝은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으로 향한 스타트업 15곳을 만나 그들이 본 가능성이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창업 전문가 심사위원 3인 인터뷰

- 핀테크·AI ① 메이아이 ② 소보로 ③ 워닝아이
- 식물·건강 ④ 모닥 ⑤ 에이치비랩 ⑥ 펠두달
- 생활·교육·문화 ⑦ 에이드런 ⑧ 워킹워드 ⑨ 징군컴퍼니
- 의료·환경 ⑩ 오이스터 에이클 ⑪ 인포마이닝 ⑫ 크레스핀
- 패션·유통 ⑬ 제리락 ⑭ 풀루레 ⑮ 락토
- 소재문 K액셀러레이터 대표 인터뷰

인터뷰

- 유수지 김도스 청년 공인중개사 “적성 안 맞는 금융회사 그만두고 27세에 새 도전... ‘작업 만족도 100%예요’”
- 동익스피링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현장 이슈 “단체를 불매운동” 그 후... 매출 하락했지만 일자리리는 줄지 않았다
- 캠퍼스 현장 “장기간 학습하는 ‘바탕인성교육’으로 성격형 일바 있는 서울여대생들”
- 늘어나는 무인계산기로 커져가는 세대 간 정보 격차

한국경제신문

가격 4,000원 / 정가구독 80,000원 / 구독문의 02-360-4841 / 광고문의 02-360-4821 / 사업문의 02-360-4831